

은혜를 알면 말씀에 순종한다

성경 신명기 27:1-10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하루 되세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온 땅과 만민들아(은혜의 찬양 30장)

- 1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 2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 3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 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후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2 너 하나님께 이끄러(찬송가 312장)

- 1 너 하나님께 이끄러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 2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 3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네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 읽기 신명기 27:1-10

- 1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 2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 3 요단을 건너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 4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 5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 6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 7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 8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 9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백성이 되었으니
- 10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본문 배경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면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맹세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약속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그 땅을 밟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새겨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백성이 되었으니”(9b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은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삶이 여호와와 백성의 삶입니다.

말씀 관찰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나요?(2-3절)

답 돌을 세워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해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요단을 건너자마자 한 가지 일을 지시합니다. 그 일은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 것입니다. 석회를 바르는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째는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둘째는 그 위에 쓴 글자가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더욱 잘 보존하고 깊이 새기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새기고 기록하라고 말씀합니까? “요단을 건넌 후에”(3a절)입니다.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9-10절). 이것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2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어떤 돌을 사용하라고 하셨나요?(5-6절)

답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해설 하나님은 돌단을 쌓을 때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5-6절).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돌을 철기로 매끄럽게 다듬는 것은 가나안의 종교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을 다듬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문화를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진 문화가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치는 기준이 아닙니다. 대세라고 해서 진리가 아니며, 분별하지 않고 대세를 따르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 적용

1 내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9-3 그런즉 너희는

신명기 29장 9절

작곡 유라해

♩ = 126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 - - - 행 하 라 행 하 라

그 리 하 면 -너 희 가 하 는 모 든 일 이 형 통 하 리 라

신 명 기 이 십 구 장 구 절 말 씀 아 - - - 멘



가정에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